

석유화학, 8월 수출 증가율 둔화

지경부, 12.8% 증가 29억7500만달러 ... 석유제품은 호조세 지속

2008년 8월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29억7500만달러로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08년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2008년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0.6% 증가한 373억9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2자리수 증가율의 호조세를 지속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도 28.7% 증가한 16억6000만달러로 양호한 수출 증가세를 유지했다.

8월 수출은 선박류, 석유제품, 철강제품, 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섬유류·가전·반도체·자동차·컴퓨터 등은 선진국 경기둔화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주요 산업의 수출동향(2008.8) (단위: 100만달러, %)

구 분	2007	2008		
		1-7월	8월 ^P	1-8월 ^P
석유제품 증가율	23,966 17.5	23,149 94.2	4,417 98.7	27,566 94.9
선박류 증가율	27,777 25.6	22,429 33.7	3,885 147.1	26,314 43.5
반도체 증가율	39,045 4.5	20,77 △6.8	3,101 △12.9	23,871 △7.6
석유화학 증가율	28,824 19.6	20,410 24.5	2,975 12.8	23,385 22.9
철강제품 증가율	23,020 18.5	17,277 30.5	2,840 36.5	20,117 31.3
자동차 증가율	37,284 13.3	21,757 2.7	2,243 △17.1	24,000 0.4
액정디바이스 증가율	16,655 36.4	10,854 26.7	1,695 6.6	12,549 23.6
섬유류 증가율	13,446 1.6	8,081 2.6	1,061 △6.2	9,142 1.5
자동차부품 증가율	12,436 21.6	8,921 26.3	1,059 13.6	9,980 24.8

석유화학 수출은 제품단가 하락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로 12.8% 증가한 29억 75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 및 역내 수요 감소 등으로 나프타(Naphtha), 에틸렌(Ethylene) 및 다운스트림제품 등의 수출가격이 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나프타 가격은 2008년 7월 1182달러에서 8월 15일 998달러로 하락했고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는 1540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8% 상승했다.

석유제품은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국제 제품 가격 상승과 역내 경질유에 대한 고질적인 공급 부족 등으로 수출호조가 지속돼 98.7% 증가한 44억1700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석유제품 수출물량은 3150만배럴로 전년동기대비 20.0% 증가했다.

액정디바이스는 세트기업의 재고증가에 따른 패널 구매량 감소와 타이완 패널기업들의 가격 인하 경쟁 등으로 판매량과 수출액 모두 감소

하고 있다.

세계 대형 LCD 판매량은 6월 3760만개(64억2000만달러)에서 7월 3510만개(55억6000만달러)로 감소했다.

베이징(Beijing) 올림픽 특수 실종과 불안한 세계경기 전망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는 극도로 위축(가격하락추세)돼 수요 확대에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섬유는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시장 수요 둔화 및 바캉스 시즌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소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역별 수출은 8월 1-20일 중남미(87.2%), ASEAN(45.8%), 중동(41.2%), 중국(33.1%) 등에서 증가하고 있고 EU(20.6%), 미국(16.3%) 등 선진국(15.2%) 수출도 2자리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화학저널 2008/09/01>